

## KOSPI, 1/4분기 실적모멘텀 강화

### KOSPI, 오늘 삼성전자 1/4분기 잠정 실적에 주목

#### 주식시장 단기 횡보 가능성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성금요일(Good Friday)로 휴장한 가운데 전일 KOSPI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하였다. 지난 3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보다 크게 부진했고, 이번 주 그리스 이슈와 미 FOMC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망심리는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은 옵션만기와 더불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KOSPI는 당분간 박스권 상단인 2,050선에서 횡보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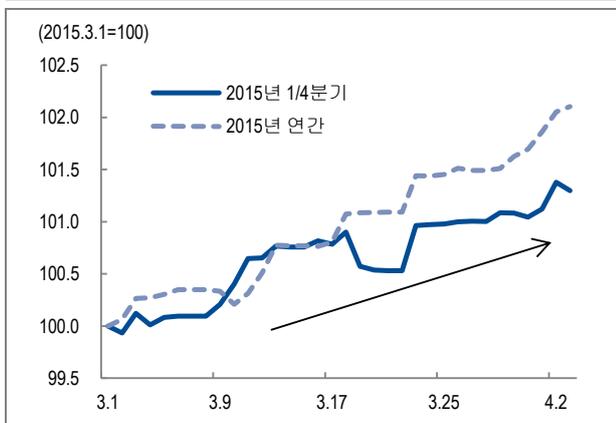
#### 삼성전자 실적발표, 주식시장의 단기 분기점

다만, 유럽과 중국 등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발표(잠정)를 시작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1/4분기 실적시즌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시장의 초점은 실적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점검해본 결과 2015년 1/4분기 및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 있으며, 3월말 이후 실적모멘텀 개선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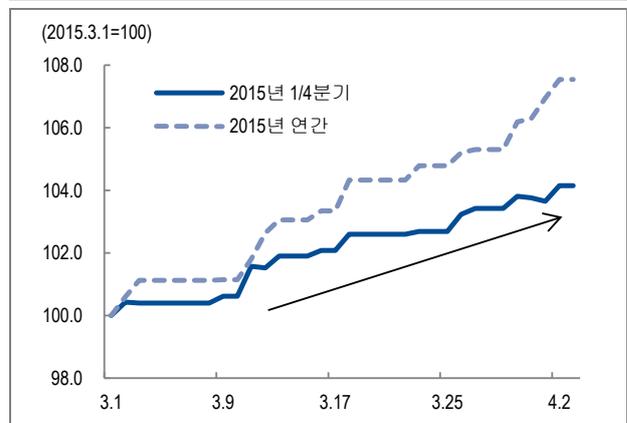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실적발표를 앞두고 더욱 가파르게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1/4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어닝쇼크 수준만 아니라면 2/4분기, 3/4분기 등 시간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그 동안 이어진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는 물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KOSPI 2,050선 돌파 및 안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진다.

KOSPI 분기 및 연간 영업이익의 추정치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삼성전자 분기 및 연간 영업이익의 추정치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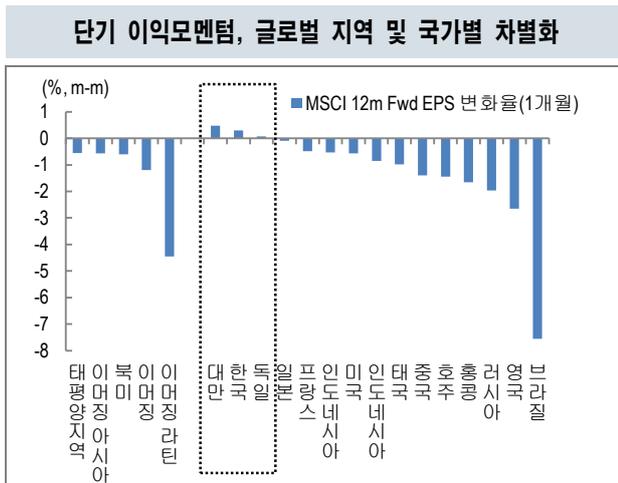
## MSCI Korea 이익모멘텀, 글로벌 상위권에 위치

### KOSPI, 글로벌 주식시장 중 상대적 이익모멘텀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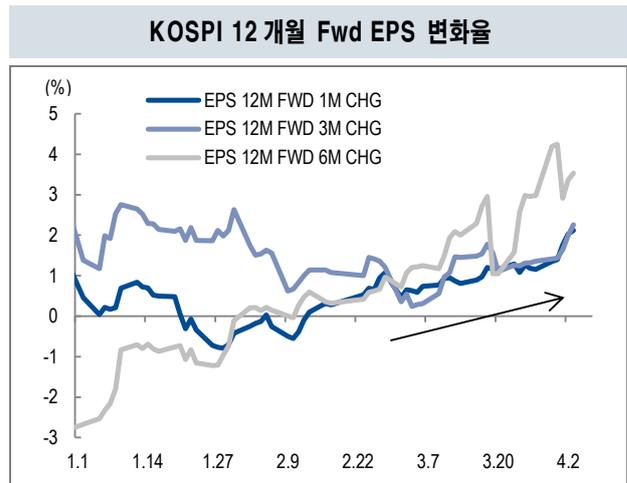
한편, 1/4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글로벌 단기 이익모멘텀(MSCI Index 기준 12개월 Fwd EPS 1개월 변화율)을 점검해보면 지역별, 국가별로 실적모멘텀 개선세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이익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지역과 이머징-아시아 지역의 어닝스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특히, 국가별로 글로벌 주요국들의 이익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한국, 독일** 등 3개 국가 정도만이 1개월 단기 이익모멘텀이 (+)권을 기록하는 차별적인 실적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KOSPI는 12개월 Fwd EPS 추정치의 1개월, 3개월, 6개월 변화율이 모두 (+)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3월말 이후 더욱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익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어 글로벌 주식시장 내 상대적인 투자메리트가 더욱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재차 매수강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이다.



자료: Thomson Reuters,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 차별적인 실적개선 및 가격메리트를 겸비한 업종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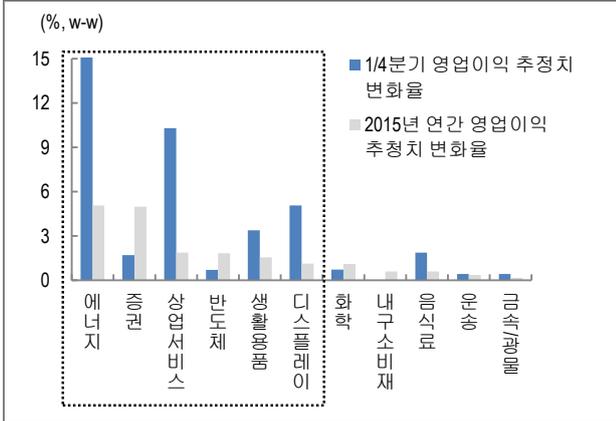
### 실적개선과 가격메리트 겸비 업종 점검

이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차별적인 실적모멘텀 보유업종과 함께 업종별 키밋추기 장세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메리트가 높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차별적인 실적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업종을 점검해 보면 지난주 2015년 1/4분기 및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동시에 개선된 업종은 11개 업종(전체 28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너지, 증권, 상업서비스, 반도체, 생활용품, 디스플레이** 등 6개 업종은 상대적으로 실적개선 폭이 강해 실적시즌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매에 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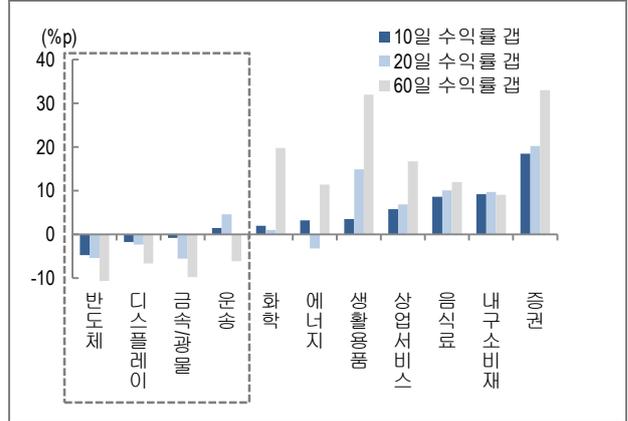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금속/광물, 운송** 4개 업종은 KOSPI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메리트를 견비하고 있어 실적시즌을 앞두고 최우선적으로 편입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동시 실적개선 업종(4월 첫째주)**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KOSPI 대비 가격메리트 견비 업종**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